

백호 임제의 '원생몽유록' 각색 나주 초등생들이 동화 출판 눈길

다시초 학생 28명 작가로 참여
어려운 고전 쉽고 재밌게 구성
백호문학관 등서 만날 수 있어

나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백호 임제(林樾) 선생의 '원생몽유록'을 각색해 동화책으로 출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백호문학관에서 다시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작가로 참여한 동화 '원생몽유록'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

동화 원생몽유록은 전라남도 문학자 원 연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백호문학관에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총14회) 운영한 '이야기 만드는 문학관' 프로그램을 통해 출판됐다.

올해 하반기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원작 각색과 삽화 작업은 다시초교 5~6학년 학생 28명과 동화작가 조경희, 윤미경 씨가 참여했다.

1576년 백호 임제가 쓴 원생몽유록은 세조의 왕위찬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소설 작품으로 주인공 '원자하'가 꿈속에서 조선 6대 왕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동안 쌓인 회한을 풀다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동화작가와 함께 소설의 주



배정인 계유정난(1453년)에 대한 이해, 원작 함께 읽기, 원고지에 동화로 고쳐 쓰기, 삽화로 표현하기 등에 참여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다.

동화 원생몽유록은 백호문학관과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백호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는 동화책 제작 과정 및 학생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원생몽유록 동영상 상영, 가족과 함께 동화 감상 등이 진행됐다.

다시초 5학년 한 학생은 "글 쓰는 시

간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동화책이 나온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보람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작품 출판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호문학관 관계자는 "이번 동화책 출판을 계기로 어린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고전 한문 소설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백호 임제 선생의 작품을 전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프랑스식 자수 보러 오세요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1월 31일까지 70여점 전시

나주시 천연염색재단이 운영하는 한국 천연염색박물관이 수준 높은 자수 작품을 선보인다. 내년 1월31일까지 프랑스식 자수를 전시한다.

술을 이루다를 주제로 한 이번 기획 전시에는 12명의 작가가 제작한 프랑스식 자수 70여점이 나왔다.

프랑스식 자수는 일반적으로 도안과 스티치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전시 중인 작품들은 실을 스티치와 함께 감아 나무와 숲을 입체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주호모던 자수기법으로 제작됐다.

국내에 처음 전시되는 주호모던 자수



박연신 작 '사계'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주호모던 기법을 박 작가에게 배웠고 자수, 펠트, 천연염색, 규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익힌 섬유예술의 다양한 제작·표현 기법을 작품에 적용했다.

박 작가는 "프랑스식 주호모던 자수 작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시할 수 있게 배려해 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형 푸드플랜 등 올해 신규시책 67건 추진 성과 점검

시책 활성화 방안도 논의

나주시는 2019년 신규시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고 각 분야별 성과 점검 및 시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규시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고 각 분야별 성과 점검 및 시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올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31개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시책 총 67건의 추진실적이 보고됐다.

부서별 주요 성과로는 인구감소 극복 방안으로 추진한 '다자녀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제'를 통해 다자녀(3명 이상)가구 812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했으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주거

비 지원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 핵심 농정이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종합전략인 '나주형 푸드플랜' 성과도 주목됐다.

시는 지난해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과 올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전국 1위의 성과에 이어 ▲푸드플랜 연구용역 완료 및 종합 세부 추진계획 수립 ▲민·관 거버넌스 운영(7회, 40명) ▲나주시 먹거리 선포식 및 먹거리정책 포럼 개최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6주, 300여명) 등을 통해 푸드플랜추진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내실을 다졌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특히 시는 일상에 노출돼있는 방사능 기체인 라돈 피해 예방을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가정과 마을 회관 등에 총 362건을 대여했다.

이 중 라돈 기준치 초과 34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정밀측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악취 해소를 위한 산림청 사업 선정으로 추진 중인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비롯해 ▲올해의 SNS 기초지자체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나주시 청년지원센터 설립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조성 ▲나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분야 신규시책들을 추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 한 해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추진에 힘써준 각 부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역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먹거리정책, 정주여건 개선, 마한문화권 개발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한 시책개발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올해 열린 금성산 노적봉 해맞이 행사.

나주시, 금성산 노적봉서 2020년 해맞이 행사 연다

나주시는 금성산 노적봉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 2020년 경자년 새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해맞이 행사는 나주청년회의소(JCI), 새마을부녀회 등 민간단체 주도로 강인규 시장, 김선승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새해맞이 이벤트가 펼쳐진다.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신명나는 풍물패 공연, 솟대 새해소망떡구기, 추위를 달래 줄 따뜻한 차와 포춘 쿠키, 떡국 나눔 등이

이어지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행사에 앞서 위험구간 해빙 작업, 통제선 설치 등 비롯해 당일 나주청년회의소 회원들의 길 안내 등을 통해 이른 새벽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LG화학 나주공장, 올해도 인재육성기금 3000만원

LG화학 나주공장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올해도 장학기금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지난 24일 나주시청에서 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인 강인규 나주시장과 이경주 LG화학 나주공장장(상무), 임직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육성기금 3000만원을 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LG화학 나주공장의 장학기금 기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나주공장은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출범한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억50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번 기탁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3억원의 장학기금이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됐다.

기탁된 장학기금은 재단을 통해 나주지역 중·고·대학생 중 성적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LG화학 나주공장은 장학금 기탁 외에도 지난 2008년부터 '희망 가득한 도서관' 사업을 통해 나주지역 초·중학교 3곳에 총 3억원을 들여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도서관을 선물했다.

이경주 LG화학 나주공장장은 "앞으로



도 나주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